通時的 觀點의 必要*

이 용 주 (전 서울대)

言語의 起源과 그로부터 오늘까지의 언어의 發達에 관해서 소상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거가 될 만한 資料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言語 現實이 오랜 세월을 두고 變化해 온 결과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도 없다. 그 변화는 한 언어의 體系에서도 일어났고 또 한 언어 각 階層의 單位 등에서도 일어났다. 이른바 언어의 歷史性에 대해서는 새삼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韓國語가 언제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확실한 것은 알 도리가 없다. 다만 文獻的 資料가 있는 수세기 동안의 것을 대강 알 수 있는 것이 고작이며 三國을 지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한국어가 여러 가지 부문에서 변화해 왔음은 충분히 알려졌다. 이러한 언어의 숙명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言語의 記述·說明은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通時的 觀點의 문제다. F. de Saussure 이래로 共時的·通時的 觀點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고 언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두 관점을 구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言語學이 언어에 관해서 무엇을 어디까지 다루어야 하는가의 여하에 따라 이 두 관점이 반드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국어의 語彙項目 몇 개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現代 韓國語의 어휘 항목에는 메(飯)와 쌀(米)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두 항목의 합성으로 형성된 멥쌀(粳)이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멥쌀을 순수하게 공식적인 관점에서만 분석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三分하는

---

* 이 논문은 고 이용주 선생님의 遺稿입니다.

것이 예사다.

메(飯) + ㅂ + 쌀(米)

한국어의 어휘 항목에 분명히 '메'와 '쌀'이 있고 그 意味로 보아 '멥쌀'이 '메'와 '쌀'의 합성이 분명하니 그 어느 쪽 명사와도 관계가 없는 'ㅂ'은 '메'와 '쌀'의 합성에 의한 造語 과정에서 개입된 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일리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럴듯한 가운데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공시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 'ㅂ'은 '메'의 일부도 아니고 '쌀'의 일부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ㅂ'이 독립적인 한 形態素냐 하면 그렇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ㅂ'이 형태소가 아니라면 단순한 음소에 불과한데 '메'의 일부도 '쌀'의 일부도 아닌 이 음소가 조어 과정에서 왜 끼어들게 되었느냐를 설명할 방법은 없다. /ㄱ/이나 /ㄷ/ 같은 것이 아니고 왜 하필 /ㅂ/이냐 하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 달리 어떤 각도에서도 이 이상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잘됐건 못됐건 위와 같은 분석 기술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通時的인 관점에서는 이 'ㅂ'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飯'을 의미하는 현대어 '메'의 古形은 '뫼'이었고 '쌀'의 고형은 'ᄡᆞᆯ'이었다.

뫼: 文王이 ᄒᆞᆫ 번 뫼 자셔든 ... 文王一飯(小學諺 4:12)
粥早飯 朝夕뫼(續美人曲)
ᄡᆞᆯ: ᄒᆞᆫ 낱 ᄡᆞᆯ 좌샤(月曲 62)
金바리예 ᄒᆞᆫ ᄡᆞᆯ ᄀᆞᄃᆞ기 다마(月釋 8:90)
ᄡᆞᆯ미 米(字會 中 20)

그러므로 현대어의 '멥쌀'에 대응되는 古形은 '뫼ᄡᆞᆯ'이 된다. 실지로 문헌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뫼ᄡᆞᆯ경 粳(字會上 12)

'뫼'와 '쌀' 두 명사가 결합되는 이 과정에서 두 명사 이외의 어떤 요소(형태소나 음소도)도 개입된 것이 없다.

결국 '米'를 의미하는 명사는 語頭에서나 합성어의 語中에서나 모두 '쌀'이었다. 그리고 어두의 'ㅂㅅ'이 모두 발음되는 二重子音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뫼쌀'의 'ㅂㅅ'이 모두 발음되었으리라는 것은 말한 필요도 없다. 그러던 것이 '쌀'의 경우 현대 국어에 와서는 어두의 한 자음 'ㅂ'이 없어져서 /s/ 또는 /s'/ 하나만으로 발음되고 있다. 물론 표준어에서는 /s'/이다. 그러나 '뫼쌀'의 경우에는 본디부터의 /-p/이 현대어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순수하게 共時的인 관점을 고수했을 때와 通時的인 관점을 개입시켰을 때에 '멥쌀'에 대한 설명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ㅂ'이 첨가된 것이냐 본디부터 있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반대의 처지가 된다.

古語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생각하고 현대어를 있는 그대로 記述하는 처지라면 造語 과정에서 'ㅂ'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하필 'ㅂ'이냐 하는 설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반면 고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고찰한다면 왜 'ㅂ'이 그 자리에 있는지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현상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에서 관찰되므로 이를 한국어의 普遍的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것이 된다.[1)]

언어학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적어

---

1) 이와 같은 현상은 '찹쌀'(ᄎᆞᆸᄲᆞᆯ)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 ᄎᆞᆸᄲᆞᆯ나 糯(字會 上 12)
그리고 현대어의 '좁쌀'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명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에서 'ㅂ'이 古形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예) 짭짤하다(ᄡᆞᆸᄲᆞᆯ하다)
씁쓰음하다(ᄡᆞᆸᄡᆞᆸ음ᄒᆞ다)
입(접)때{이(저)ᄢᅦ}

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現象에 대해서는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지금까지의 언어학으로는 한 언어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모든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說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한 언어에서 특정한 語形의 현재가 그 과거에 말미암은 것임이 확실할 때, 그것은 通時的인 관점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共時와 通時가 서로 排他的이어야 할 필요는 아무데도 없다. 그것은 진실을 덮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言語의 각 계층의 모든 項目들의 과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이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하여, 언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

1. 언어의 변화가 반드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로 다양한 원인으로 해서 언어는 변한다.
2. 언어가 변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역사는 길지 않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급에 한계가 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언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 길은 전혀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通時的 관점을 원용한다 해도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共時와 通時를 준별한다는 명목으로 언어에 대한 불충분하고 불투명한 설명을 감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